소규모・다기능 고령자주택의 공간구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 일본 동경권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ype and Space Composition in the Small Scale and Multi-functional Housing
- focused on the cases of the Tokyo area -

소 갑 수*
So, Kab-Soo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living environment for elderly people and its network is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small-scale and multi-functional apartment house in which they can live is continuously required in Japan. For these reasons, it is appearing a new type of housing, Group-Living, where one lives together with others. It represents a way of communal living which is based on service at home.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felicity of each space, connections between the different areas, insufficiency of positioning on the aged welfare. Hence this research targets are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Group-Living, to inquire the Space composition and types of it in Tokyo Area,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mall-scale and multi-functional apartment house for the aged.

키워드 : 그룹리빙, 자립고령자, 동경권, 공간구성
Key Words : Group-Living, The Independent Elderly people, Tokyo Area, Space compos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일본 의료복지서비스는 제도의 지속성, 활기찬 초고령사회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종합화라는 관점에서 2006년 4월 개호보험제도의 개편을 실시하였으며,「병원의료 환경에서 가정적 환경으로」,「수용시설에서 거주시설로」,「개호 중심에서 재택 중심의 서비스로」의 이행 등 커다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단독세대의 고령자나 자립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사회 생산계층의 감소, 고령자의 생활 안전대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나 적절한 주거환경의 제공이 불가결하고, 사회적으로 타인과 격리되지 않은 채,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체제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자립한 재택고령자의 새로운 거주환경으로, 지역 환경 속에서 소규모・다기능을 갖춘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자립한 고령자가 타인과 공생하여 살 수 있는 그룹리빙(Group Living)이라는 주거개념이 나타나, 재택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동생활의 일부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의 실생활에 있어서 자립과 공생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개개인의 생활공간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또한 개인 환경을 비롯한, 지역 환경 속에서 개개의 인적, 물적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요구되어지는가 등을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각종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복지서비스 중에서, 자립과 공생을 기본 매체로 하고 있는 그룹리빙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일본 동경권내의 그룹리빙의 현황을 고찰하고, 각 운영주체의 운영형태와 활동, 기본적인 공간구성 및 유형, 특성,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후 고령자 거주환경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조사개요

동경권내에 있는 그룹리빙을 견학 및 문헌조사를 통해 동경도 6개소, 카나가와현 12개소, 치바현 2개소, 사이타마현 3개소,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정회원, 동경대학 건축학전공 객원연구원, 공학박사

www.kci.go.kr

그러나 대부분의 그룹리빙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과 아직 운영측면이나 거주자의 정착되지 않은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회답수는 8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중 회답된 운영자측과 거주자의 협력을 얻어, 총 6개소를 중심으로 운영측의 현황 및 거주자의 일상생활형태 등에 대해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조사개요

구분	대상	방법	내용
문헌조사	동경권내의 그룹리빙 23개소	고령자 복지 관련정보지, 관련학회, 넷 검색	・그룹리빙의 개념 및 현황 ・운영형태의 구조 및 활동 ・운영구성원의 구성형태 ・각종 지원서비스의 유형
설문조사	23개소의 그룹리빙 운영자 및 관리자	우편 우송에 의한 회답방식 (회답수 : 8개소)	・운영주체와 건물개요 ・각 그룹리빙의 평면유형 및 공간구성 ・운영주체에 따른 생활 지원 서비스 및 교류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
인터뷰조사	6개소의 운영자 및 거주자 (GL-E, R, S, I, J, O)	직접적인 설문 응답방식 및 관찰기록	・운영자 : 공간의 물리적 환경, 운영방식 및 현황, 교류프로그램 운영실태 등 ・거주자 : 개인공간내의 물리적 환경을 기록

GL:그룹리빙

2)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자리매김

일본 내에서의 소규모・다기능 주택의 그룹리빙에 관한 기존 연구로써는, 오에(大江)*의 조사에서는 동경권의 그룹리빙을 중심으로, 독자적 지원체재나 고령자의 공동생활의 존재유형을 밝히는 기초적인 연구를 행하였다. 또한, 사이토(齊藤)**의 연구에서는 소규모공동주택으로써 그룹리빙을 자리매김하여,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하드(Hard)면과 소프트(Soft)면의 측면으로부터 거주자의 거주방식을 분류하고, 운영측면, 자금측면, 정보제공측면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사키(佐々木)***의 연구에서는 공영주택의 사례를 통하여,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협동 생활의 현황, 정보지원제공과 운영지원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한 고령자의 생활요구와 거주환경의 요구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련의 사례 고찰을 통한 조사에 머물러, 전체적인 소규모・다기능 공동주택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고령자의 개호도 여부에 상관없이, 자립 가능한 고령자에 의한 공간의 이용현황에 초점을 맞춰 공간 구성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2. 그룹리빙의 개념 및 자리매김

2.1 그룹리빙의 시초와 형성과정

일본의 고령자주택유형에는 복지계열의 케어하우스, 유료 노인홈이, 주택계열에서는 고령자대상유료임대주택, 실버하우징 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룹리빙은 1980년대부터 거주자의 밀접한 친분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강한 결속을 맺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비혈연관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1995년 간사이 대지진 이후, 고령자생활의 커뮤니티 문제, 혈연, 지연을 초월한 공동생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이때부터 개인 및 NPO법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고령자 주거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의 그룹리빙은 유럽, 북미 등의 선진사례를 참고로 하여, 1996년에는 후생노동성(구 후생성)이 고령자의 재택개호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고령자 그룹리빙 지원모델사업」****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지원모델사업에 있어서, 그룹리빙의 기초적인 개념은 소수의 고령자가 상호부양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거주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로의 고독감을 달래주며 신체상태의 저하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서로 보충해 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자립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과 함께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후생노동성의「개호예방 및 생활지원 실시요강」에 따른「고령자의 공동생활(그룹리빙) 지원사업」*****에서는,「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기능의 저하를 보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태」로써,「5명에서 9명사이로 대략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동일 가옥 내에서 식사 등의 상호생활을 공동화할 수 있는 거주형태」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와 생활의 고독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혈연관

* 大江 守之, 高齢者グループリビングに關する基礎的研究,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2002

** 齊藤 美穗, 高齢者の小規模共同住宅に關する基礎的研究,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2002

*** 佐々木 伸子, 公營住宅のおける高齢期のグループリビングに支援方策, 日本建築學會學技術報告集17号, 2003

**** 간사이 대지진을 계기로, 후생노동성이 해당년도 모델사업으로 제도화한 것임. 고령자 재택개호대책의 일환으로 출발시켜, 고령자사이의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일정의 조건을 갖춘 그룹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의 재택개호 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1건당 최고 400만엔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 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그룹리빙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 후생노동성의「介護予防・生活支援事業實施要綱」에 의해 지원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를 보조하기 위해 그룹리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작성 및 조정, 지역주민과 자원봉사단체에 의한 지원체제의 구축을 행하고, 60세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이용정원은 5명에서 9명사이로 정하고 있다.

www.kci.go.kr

계가 없는 고령자가 모여 서로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주하는 공동주거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자기 판단이나 일정의 자립된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2.2 전개에 따른 발전양상

원래 그룹리빙의 시발점은 행정적 제도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운영자측의 운영형태나 구조는 각 운영자측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 발전되어 왔다.

특히 1996년의 지원 모델사업으로부터 「그룹리빙 사쿠라(さくら)」가 지원모델로써 지정되었으며, 이후 「COCO쇼난다이(湘南台)」, 「호리노우찌(堀の内)」등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 및 법인)단체나 개인에 의해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그룹리빙 사쿠라」, 「COCO 쇼난다이」는 그룹리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전국각지에서 그 운영형태나 관련서비스를 각지의 실정에 맞춰 새롭게 활용하는 등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거주자에 대한 생활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생활을 상호 보완하는 공동 거주형태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역과 연계된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고령자공동주택과 달리, 지역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거주형식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2.3 고령자의 주거관점에 있어서의 특징 및 위치

그룹리빙의 거주방식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가사노동이나 협동생활로 구속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가가 요구되는 참가형 공동주택의 한 형태로써,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인공간과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호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거주자의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요구되고, 개호보험의 재택서비스의 이용도 가능하지만, 이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된 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자관련 거주형태에 있어서 그룹리빙은 고령자의 공동생활유지와 함께, 지역과의 지원체제의 구축을 이끌어, 고령자와 고령자사이, 고령자와 지역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유지하려는 거주형태이다. 고령자 관련시설을 경제적・신체적 상황에 따른 분류현황을 보면 그림1과 같다. 특히 그룹리빙을 고령자복지시설 측면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외에도 고령자 대상주택 측면으로 분류하는 경향 등 그룹리빙의 자리매김은 아직 명확히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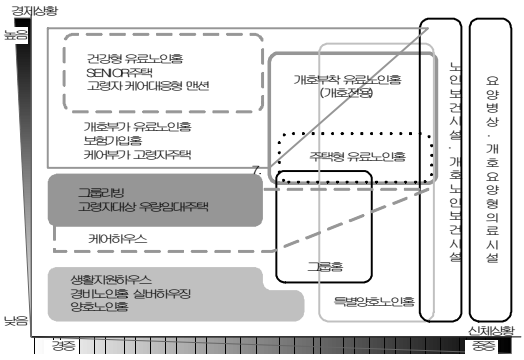


그림1. 경제적・신체적 상황에 따른 고령자시설의 분류
자료:(주)부동산유통연구소편, 고령자주택시설 철저가이드, 2004(일본)

3. 동경권의 그룹리빙의 현황

3.1 운영형태 및 건물개요

현재 일본 내의 그룹리빙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초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그룹리빙이 동경권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그룹리빙의 개요 및 현황을 보면 표2와 같다.

표2로 부터 전반적인 운영주체의 구성을 보면 개인에 의한 운영, NPO법인에 의한 경우, 기업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NPO법인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룹리빙의 운영과정을 살펴볼 때, 건물의 설계・시공부터 거주자와의 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사업측면,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향상, 유지 등의 운영측면,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상 관리 등의 관리측면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에 운영주체별 운영구조를 사업, 운영, 관리의 3가지 측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2 운영주체별 운영구조 및 특징

1) 개인에 의한 운영의 경우

개인주체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사업화 측면보다는 이전의 복지계열에 관련된 자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다른 운영주체보다 소규모적이며, 그룹리빙의 운영・관리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영자가 거주자와 함께 살고 있는 형태가 많아 거주자 개인생활의 상세한 부분까지 파악이 가능하여 필요시 적절한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거주자와의 임대계약이나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개인운영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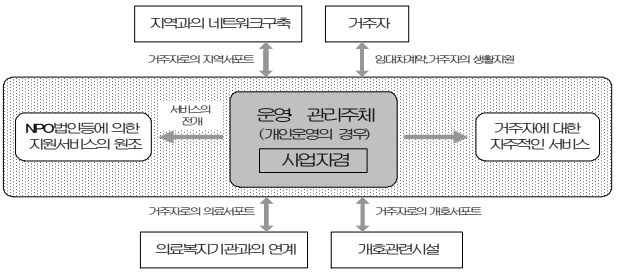


그림2. 개인운영 측면에서의 운영구조

www.kci.go.kr

표2. 23개 조사대상의 그룹리빙 현황

구분		운영주체	개시년도	건물개요						비고
				규모	연면적(㎡)	건축면적(㎡)	개인실면적(㎡)	개인실형태	정원/현인원	
동경도	GL-A	NPO법인	1999년	2층 철근 콘크리트조		74.6	13.2		6명/6명	
	GL-B	NPO법인	2004년	3층 철근 콘크리트조	497.26	165.75	20	양식	10명	
	GL-C	NPO법인	2001년	목조평기와조	285.00		14.8~15.18	양식	9명(1그룹)	
	GL-D	NPO법인	2001년	2층 철골조	555.19	277.6	15.18	양식	18명(2그룹)	
	GL-E	개인	2003년	2층 목조	165	90.75	9.9~13.2	일식	6명/3명	○
	GL-F	NPO법인	2000년	2층 목조재래공법	242,97	131,48	28.10	양식	5명	
치바현	GL-G	주식회사	2005년	3층 철근 콘크리트조	804.12	268.04	10.35~12.35	양식	18명	
	GL-H	개인	1996년	2층 목조, 일부 철근	498	264	24.75	양식	8명/8명	
사이타마현	GL-I	유한회사	1990년	3층 목조	375.40	125.94	13.2~19.8	양식	4명/4명	○
	GL-J	유한회사	2002년	3층 철근 콘크리트조	707.46	235.82	17.33~34.65	양식	7명/6명	○
	GL-K	NPO법인	2005년	2층 철골조	1135.42	570.21	40	양식	12명/3명	
카나가와현	GL-L	주식회사	1999년	3층 철근 콘크리트조	264		13.08~20.11	양식	7명	
	GL-M	주식회사	2001년	2층 목조	260		13.5~14.9	양식	7명	
	GL-N	주식회사	2002년	2층 목조	590		13.5	양식	17명	
	GL-O	NPO법인	2003년	3층 철근 콘크리트조	909.30	341.62	24.76~24.89	양식	9명/5명	○
	GL-P	NPO법인	1999년	2층 목조	484.2	276.90	25.06	양식	10명	
	GL-Q	NPO법인	2003년	2층 목조	496.72		25.06	양식	10명	
	GL-R	NPO법인	2004년	2층 철근 콘크리트조	545.58		25.2~25.5	양식	10명	○
	GL-S	NPO법인	2005년	2층 철근 콘크리트조	581.29		25.2~25.5	양식	10명/3명	○
	GL-T	개인	1998년	2층 목조	167.64		27.94	일/양식	6명	
	GL-U	개인・NPO법인	1999년				28~52	양식	14명	
	GL-V	NPO법인	2003년	2층2×4공법	868.71		41.19~73.25	일/양식	14명	
	GL-W	사회복지법인	2003년				29.7	양식	10명	

○ : 인터뷰 조사대상

2) NPO법인에 의한 운영의 경우

NPO법인주체에 의한 전반적인 운영방식은, 건물임대주로부터 건물관리 위탁을 받거나, NPO법인 자체가 건물임대주가 되어 거주자를 모집하고, 임대계약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다른 운영주체보다 다양한 운영방식이 보인다. 예를 들면 GL-P・Q의 경우에는 복지관련 경험이 있는 개인이 최초 그룹리빙을 사업화시켜, 전문가와 협조하여 NPO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써, 주택건설과 운영・관리측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GL-O・R・S도 비슷한 경위를 거쳐 설립된 사례이며, 기업이 그룹리빙을 사업화시켜 NPO법인이 운영・관리하는 방식도 보이고 있다. 또한 거주자에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자치단체와의 연계, 식사・청소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거주자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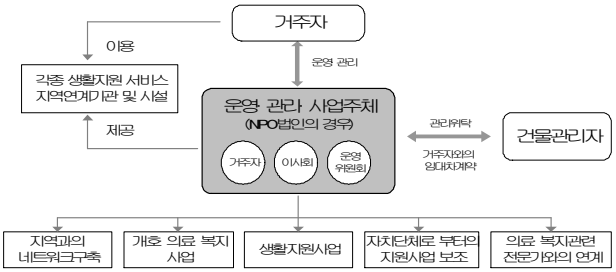


그림3. NPO법인운영 측면에서의 운영구조

3) 기업에 의한 운영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방식은 NPO법인과 비슷한 경우로써, 기업주도에 의한 총괄운영과 개인운영이 첨가된 운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특히 운영・관리측면에서 토지나 건물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주체가 거주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개호직원이나 생활지원이 가능한 전문직원 등을 고용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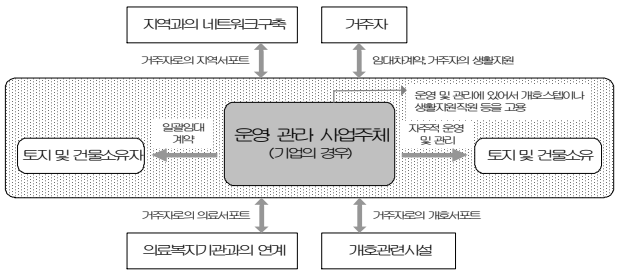


그림4. 기업운영 측면에서의 운영구조

3.3 그룹리빙의 운영시스템

위와 같이 운영주체에 따른 그 운영시스템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운영구조의 특성으로부터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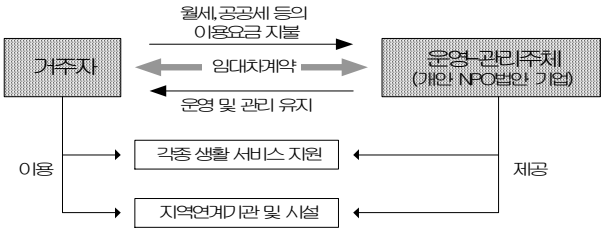


그림5. 그룹리빙의 개괄적인 운영 시스템

전체적인 그룹리빙의 운영시스템을 정리해 보면 그림5와 같다. 대부분의 운영에 있어 거주자와 운영주체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 형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운영방식과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운영측면과 생활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직원을 고용하는 등 개개의 그룹리빙의 운영시스템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경권내의 그룹리빙을 사업, 운영, 관리의 3가지 측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그림6과 같다.

각각의 운영형태가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그룹리빙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단체나 협력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그 형태와 규모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NPO법인과 기업운영의 경우에 있어 이러한 전개 양상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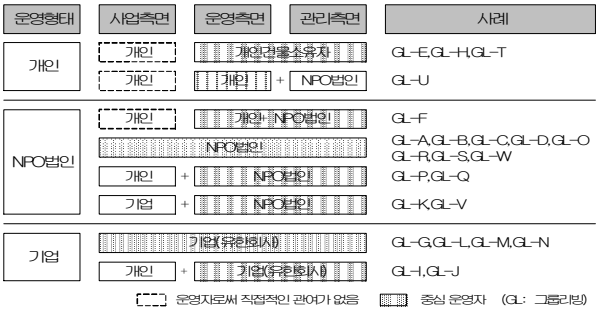


그림6. 운영주체 측면에서의 운영형태

3.4 운영주체별 구성원 및 서비스 유형

1) 운영주체별 구성원의 현황

위와 같이 그룹리빙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운영활동과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과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는 직원이나 구성원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개인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자가 거주자와 같이 생활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그 구성원과 거주자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측면에서도 소규모의 형태가 많아, 구성원의 형태도 최소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NPO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보다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어, 주로 이사장과 그 회원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의 형태를 가지고

표3. 운영주체별 서비스의 구성원 현황

구분		운영주체	직원 및 구성원
동경도	GL-A	NPO법인	법인회장, 자원봉사자 19명
	GL-B	NPO법인	전문스텝1명, 회원 및 조합원 29명, 각 분야 전문가, 생활 코디네이터
	GL-C GL-D	NPO법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개호사업 컨설턴트
	GL-E	개인	이사장, 회원2명
	GL-F	NPO법인	운영이사장
치바현	GL-G	주식회사	영양사, 간병인, 개호지원전문인, 청소원
	GL-H	개인	관장, 직원2명, 조리사3명
사이타마현	GL-I	유한회사	운영자, 관리영양사
	GL-J	유한회사	운영자, 24시간 상주관리자
	GL-K	NPO법인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국장, 이사4명, 간사2명, 프론트스텝3명, 식사도우미4명
카나가와현	GL-L GL-M GL-N	주식회사	개호직원, 가정전문의, 생활지원 직원
	GL-O	NPO법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4명, 간사2명, 생활 코디네이터
	GL-P GL-Q	NPO법인	케어매니저, 의료・복지전문가, 건축가, 시민단체, 의학요법사, 생활 코디테이터
	GL-R GL-S	NPO법인	이사장, 회원2명, 사무원3명, 관리영양사1명, 컨시어지[1)]
	GL-T	개인	운영자
	GL-U	개인・NPO법인	운영자, 코디네이터(간호사)
	GL-V	NPO법인	생활상담 코디네이터
	GL-W	사회복지법인	24시간 상주직원

1) 컨시어지(Concierge):사전적 의미로는 아파트 등의 관리인을 말함. GL-R・S의 경우에는 컨시어지라 하여 24시간 상주가능한 자를 고용하며, 식사 및 청소 서비스, 거주자와의 대화 및 상담, 각종 행정적인 업무, 운영자와의 연락업무 등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용측면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된 규제나 법적 구속장치는 없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인 만큼, 의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젊은 층보다는 거주자와 비슷한 연령대가 많다. 생활 코디네이터의 경우도 컨시어지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있다. 일부 그룹리빙에서는 컨시어지(Concierge)나 생활 코디네이터라 불리는 구성원이 그룹리빙 내에 상주하면서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의료・복지계통의 전문가나 개호사업 컨설턴트, 자치단체 등 폭 넓은 네트워크를 맺고 있어, 거주자가 생활면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기업운영에 있어서도, NPO법인과 비슷한 구성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GL-I・J와 같이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거주자의 생활에 관련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2) 운영주체별 각종 서비스의 분류

또한 기존 문헌조사로부터, 현재 각 그룹리빙에서 거주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각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표4와 같다.

그룹리빙에서의 서비스는 크게 의료・복지측면과 생활면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측면에 따라 지역관련 서비스, 의료・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취미・이

www.kci.go.kr

표4. 운영주체별 생활지원 서비스의 현황

운영형태	의료・복지면		생활면	
	지역관련 서비스	의료・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취미・이벤트 서비스
개인	24시간대응 의료기관, 지역 복지서비스	입욕개호, 홈 헬퍼의 원조	가사도움서비스, 식사 및 청소 대행 서비스	서예, 자원 봉사활동, 생일파티, 합창부 활동 등
NPO 법인	복지다이얼 사업, 24시간 대응의료기관, 특별 양호노인 홈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제휴, 개호사업, 지역주민과의 교류, 대학 등과의 연계, 커뮤니티 레스토랑의 운영	지역의 개호보험 사업에 참가, 홈 헬퍼의 원조, 건강진단 서비스	식사 및 청소 대행 서비스, 가사서비스, 긴급시의 생활지원 센터의 운영 등	저녁식사 모임, 연구회, 미팅 및 거주자 교류회, 서예 및 그림 그리기, 자원 봉사활동, 각종 동아리 활동, 다과회, 간담회 등
기업	데이서비스 센터의 운영	건강진단 서비스, 관련 의료기관과의 제휴	식사 및 청소 대행 서비스, 가사서비스	거주자 교류회, 간담회, 자원봉사활동

벤트 서비스로 세분화되어진다.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로써는 식사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의 의료시설과의 연계, 거주자의 다양화된 취미활동의 제공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운영주체별로 보다 다양화된 서비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거주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나 유지 방법은 이후에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 운영형태에 따른 공간구성과 서비스현황

4.1 운영주체별 공간형태 및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주택 내・외부의 공간관계에서는 뉴만(O.Newman)*의 4단계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내 고령자주택의 환경에 있어서도 주택 내부의 이용자 행위와 기능성, 생활 형태, 외부공간과의 관계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주거공간에 대한 환경행동학적인 측면의 개념이 정립되어 왔다. 이를 기초로 하여 그룹리빙의 공간구성을 각 운영주체의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표5와 같다.

그룹리빙의 공간유형은 거주자의 개인생활을 보장하는 개인공간과, 공동으로 식사를 하거나 거주자사이의 교류를 도모하는 공용 공간이 기본적인 공간으로써 편성되어 있다. 또한 일부의 그룹리빙에서 거주자와 지역과의 교류를 의도하거나 각종 지원서비스가 행해지는 지역교류공간이 보여지고 있다.

원래 그룹리빙의 공간구성은 원래 행정적인 측면의 제도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룹리빙을 처음에 시도한「그룹리빙 사쿠라」,「COCO 쇼난다이」등 운영자측으로부터 구상된 공간구성이 매개체가 되어, 이러한 공간이 주된 개념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4단계의 성격을 가진 공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운영측으로부터의 물리적인 공간분류를 전제로 하여 조사한 결과이며, 실제 거주자의 생활이용 형태측면에서 보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공간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가운데 조사대상 중 NPO법인운영의 그룹리빙에 있어 이러한 공간유형이 비교적 정착화 되어, 운영측면에서도 다른 운영주체와 비교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GL-E・I와 같이, 건물의 소규모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각 공용공간을 지역교류공간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룹리빙의 공간구성에 있어 이 3가지 유형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거주자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유형을 바탕으로 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유형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7과 같다. 개인공간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자립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침공간, 안락공간, 취사공간, 식사공간, 위생공간, 수납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용공간에서는 거주자와 직원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실 및 공동식당, 공동욕실, 직원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교류공간에서는 아뜨리에, 취미 및 이벤트 공간 등의 커뮤니티 공간과 함께 데이 서비스나 재활실 등의 지역관련시설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사대상의 그룹리빙에 있어서 각 운영주체에 따라 각각의 공간구성 특징이 보인다. 개인운영의 GL-E의 경우는, 영세적이며 소규모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교류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다. NPO법인에 의한 경우는, 기본적인 3가지 유형의 공간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아뜨리에를 비롯한 취미교실, 커피숍 등이 그룹리빙 공간 내에 배치되어 지역과 연계된 교류공간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운영의 GL-I・J경우에는, 동일 기업이 운영하며 개인운영의 GL-E와 마찬가지로 운영자가 거주자와 같이 거주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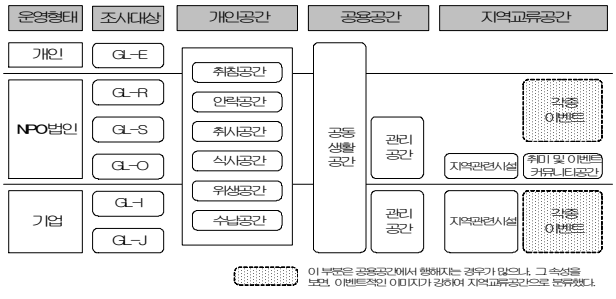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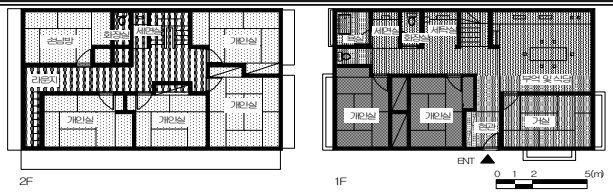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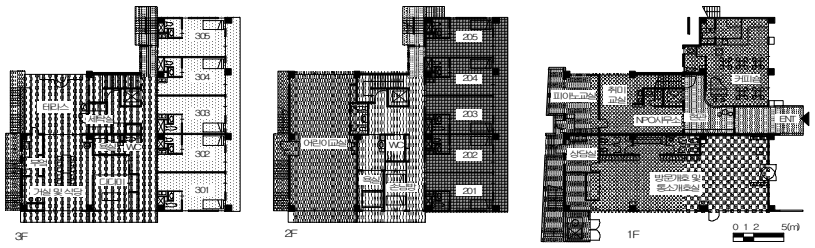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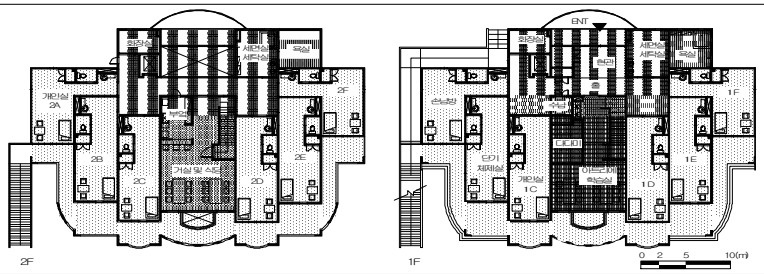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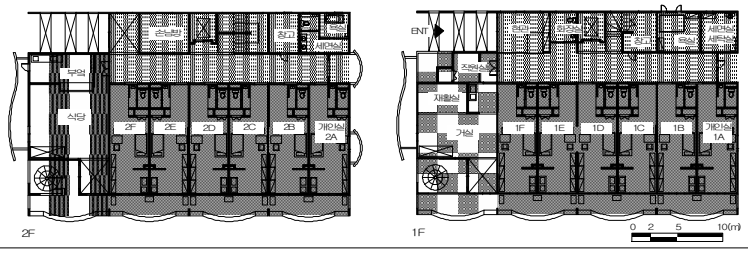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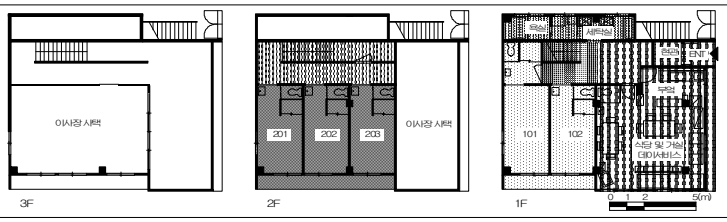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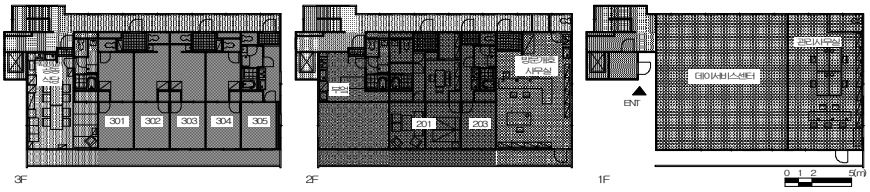


그림7. 각 운영주체에 의한 공간분류

* 뉴만(Newman, O.)은,「인간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사회적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영역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로 부터 공간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창하였다. 이에 주택 주변의 영역을 개인공간(Private), 준개인공간(Semi-private), 준공용공간(Semi-public), 공용공간(Public)의 4단계로 분류하였다.(Defensible Space,1972)

www.kci.go.kr

표5. 그룹리빙의 평면유형 및 공간구성

구분	위치	운영주체	평면 및 공간구성	전 경
GL-E	동경도	개인		
GL-O	카나가와현	NPO 법인		
GL-R				
GL-S				
GL-I	사이타마현	기업		
GL-J				

개인공간 공유공간 지역교류공간

특히 GL-O・I・J에서는 통소개호(通所介護)나 데이서비스 시설이 겸용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이 그룹리빙 내 일부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거주자와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지역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2 공간유형별 구성 및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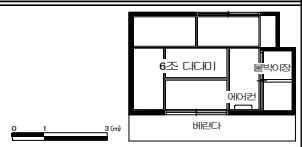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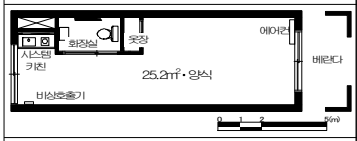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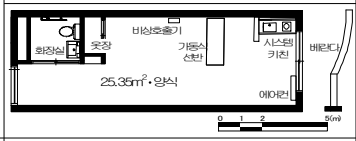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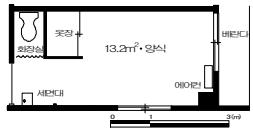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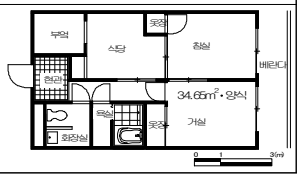
1) 개인공간의 물리적 환경 및 이용현황

그룹리빙의 각 공간유형에 있어서, 실제 거주자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장소로써는 개인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개인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고찰해 보면 표6과 같다.

개인공간의 대부분은 원룸의 양식형식으로써, 거주자는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안락공간을 가지면서 여가나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공간

www.kci.go.kr

표6. 개인공간의 물리적 환경

구분		개인실 환경(기본형)	내부사진(사례)
GL-E	개인		
GL-O	NPO 법인		
GL-R			
GL-S			
GL-I	기업		
GL-J			

으로 되어 있다. GL-E・I의 경우에는, 그룹리빙 자체가 소규모이므로 개인실 또한 9.9㎡정도의 크기이며, 실내에는 수납 및 설비시설 등이 갖추어진 비교적 단순한 환경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거주자 스스로가 개인물품이나 가구 등을 준비하여 개인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다르게 NPO운영이나 기업운영의 경우에는 공간 내에 각종 설비시스템을 갖추어 거주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조사대상 중 NPO운영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개인물건이나 가구 등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설계측면에서 계획을 하여 비교적 넓은 개인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의 식사가 운영자측으로부터 제공되는 것과 별도로, 개인취사가 가능하도록 개인실 내에 별개의 시스템키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도 개인 용무가 가능한 화장실, 넓은 수납공간, 베란다 등이 개인실 내에 포함되어 있어 거주자가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거주자의 신체변화에 따른 비상시에 대비하여 각 개인실 내에는 비상호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2) 공용 및 지역교류공간의 물리적 환경 및 이용현황

그룹리빙 내에서의 공용공간은 거주자와 거주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그룹리빙의 경우에는 부엌 및 식당, 거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개인공간의 설비시스템과 별도로, 공용화장실 및 욕실, 각종 서비스 및 관리 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룹리빙 내 전체공간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설치나 복도 내 손잡이 부착, 단차해소 등 베리어 프리화 되어 있다. 그 중 GL-O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의 교류나 각종 취미활동을 3층 거실공간에서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2,3층 부분에도 지역관련시설이 배치되어, 개인공간과 함께 조화된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GL-I와 같이 거주자의 공용공간을 낮에는 지역 데이서비스 시설로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듯이, 지역교류공간은 각 운영측면의 실정에 맞게 전개되고 있다.

4.3 공간유형별 구성 및 이용현황

각 그룹리빙의 평면유형으로부터, 개인공간, 공용공간, 지역교류공간으로 분류하여 공간요소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공간유형을 장소별로 세분화하여 그 물리적인 공간 환경을 정리해 보면 표7과 같다.

표7. 공간유형별 물리적 환경

공간유형		공간구성	각 그룹리빙의 공간유형별 물리적 환경					
			GL-E	GL-O	GL-R	GL-S	GL-I	GL-J
개인공간	취침공간	침실	○	○	○	○	○	○
	안락공간	거실	○	○	○	○	○	○
	취사공간	시스템키친		○	○	○		○
	식사공간	거실		○	○	○		○
	위생공간	욕실						○
		화장실		○	○	○	○	○
		세면대		○	○	○	○	○
	수납공간	붙박이장	○		○	○	○	○
	기타[1]	베란다	○	○	○	○	○	○
		에어콘	○	○	○	○	○	○
공용공간	공동생활공간	거실	○	○	○	○	○	○
		식당	○	○	○	○	○	○
		공동부엌	○	○	○	○	○	○
		세탁실	○	○	○	○	○	○
		세면실	○	○	○	○	○	○
		공동욕실	○	○	○	○	○	○
		탈의실	○	○	○	○	○	○
		공동화장실	○	○	○	○	○	○
		다다미실		○	○			○
		현관	○	○	○	○	○	○
		테라스		○	○	○		
		라운지	○					
		복도	○	○	○	○	○	○
	관리공간	손님방	○	○	○	○		
		관리/직원실		○		○	○	○
		엘리베이터		○	○	○		○
		창고・수납	○	○	○	○	○	○
지역교류공간	지역관련시설	데이서비스 통소개호실		○			○	○
		아뜨리에		○	○	○		
	커뮤니티	취미/이벤트		○	○[2]	○[2]		

1) GL-R・GL-S의 경우, 비상호출버튼 및 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2) 각종 이벤트나 행사를 할 경우, 그룹리빙 공간내의 공용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

www.kci.go.kr

최초 그룹리빙을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에는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 형태를 위한 취미 및 이벤트 공간과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지역 관련시설을 수용하는 형태가 기본이지만, 조사 대상에 있어서 이에 미치는 경우가 적어,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4 운영주체에 따른 각종 서비스의 유형

그룹리빙에 있어서는 단독거주 고령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거주자에 대한 각종 생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교류 프로그램 등이 운영자측으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우선 생활지원 서비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8과 같다.

표8. 운영주체별 생활지원 서비스의 현황

생활지원서비스	개인	NPO법인			기업	
	GL-E	GL-O	GL-R	GL-S	GL-I	GL-J
식사전달		○	○	○	○	○
조리	○[1)]	○	○	○	○	○
식사정리 및 청소	○		○	○	○	○
개인실 청소						○
공용공간 청소	○	○	○	○	○	○
24시간 지원	○		○	○	○[2)]	○

1) GL-E의 경우는, 운영자가 거주자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항시 공동으로 일을 분담하여 생활을 하고 있다.
2) GL-I의 경우에도 운영자가 한 건물 내에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그룹리빙에 있어서는 운영자측으로부터 고용된 직원이 개인실 이외의 청소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24시간 상주 직원이 있어, 신체상태가 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시 대응 서비스와 함께, 개인실 청소서비스 등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교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9와 같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에 있어 지역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이유로써는 개인운영이기 때문에, 또는 그룹리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후의 계획만을 세운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거주자의 신체변화가 많아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들 수 있다.

그러나 GL-O와 같이 각종 개호관련시설이나 이벤트, 취미활동 등 정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보여지고 있다.

표9. 운영주체별 각종 프로그램의 현황

프로그램	개인	NPO법인			기업	
	GL-E	GL-O	GL-R	GL-S	GL-I	GL-J
통소개호센터		○			○	○
방문개호센터		○				○
커뮤니티 공간		○				
상담실		○				
어린이교실		○				
각종 이벤트[1)]		○	○	○	○	○
취미활동[2)]		○	○			

1) 이벤트에는 거주자의 생일파티, 크리스마스파티 등의 파티형태와 반상회나 각 절기마다의 행사 등이 있다.
2) 취미활동으로써는 수예, 붓글씨, 마술쇼, 기타교실, 펜글씨 교실, 합창 등이 있으며, 이벤트와 함께 거주자의 다양하고 풍요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5. 결론

5.1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분류

동경권내의 그룹리빙을 대상으로 한 운영형태에 있어서 운영자측의 역할로부터 보면 사업측면, 운영측면, 관리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운영주체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운영형 : 개인운영자가 그룹리빙을 세워 운영・관리측면을 중심으로 한 운영형태이며, 비교적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거주자의 생활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다른 운영주체보다 서로의 상호관계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2. NPO법인 운영형 ; 대부분의 그룹리빙에 있어 보이는 형태로써 주로 NPO법인이 주체이며, 개인이나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가져 운영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하여 거주자의 생활에 관련한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구성체를 형성하여 거주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형태라 할 수 있다.

3. 기업 운영형 : 원래 개인운영에 의한 형태가 발전되거나 기업주도의 형태가 있으며, 그룹리빙을 사업화 측면의 성격이 강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NPO법인이나 개인과 협력관계를 맺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나 활동측면에서도 NPO법인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5.2 각 공간구성요소와 거주자와의 관계

그룹리빙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자립 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공간이 중심이 되어, 거주자사이와 지역과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기능적인 공간요소가 필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적 공간요소로써는 거주자의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생활이 가능한 공간형태와 적절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공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개인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요소가 필요로 하며, 공용공간에는 거주자사이의 친목도모와 안정적인 생활공간의 확보로써의 교류공간을, 지역교류공간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과 함께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리빙의 공간구성을 정리하여 보면 그림8과 같다.

특히 고령자의 주거영역 측면에서 4단계의 공간개념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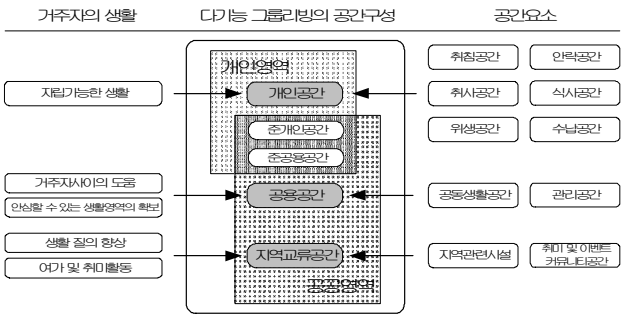


그림8. 공간요소와 거주자 생활과의 관계

은 거주자의 생활영역의 관점에 중심을 두고 분류된 것임에 반하여, 본 연구에 있어서의 공간구성은 운영자측으로부터의 물리적인 환경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아직 그룹리빙이 운영자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공간, 공용공간, 지역교류공간으로 하는 기본적인 공간이 형성되지만, 실제 거주자의 생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 공간에서의 영역형성에 따른 다양한 공간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기능 공간구성의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다양한 공간구성을 전제로 하여 이후에는 거주자의 생활기능면에 초점을 맞춰 각 공간의 이용형태 및 영역형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닌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 측면에 관한 연구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3 공간에 따른 각종 서비스의 효율적 운용

그룹리빙의 공간구성으로부터 보면 개인공간에서는 단독세대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으며, 공용공간과 지역교류공간에서는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 및 지역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식사제공 서비스나 이벤트 등의 특정한 것에 편중되어 사용되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개인공간은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되어 지는 것으로 하고, 공용공간과 지역교류공간의 이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에 그룹리빙이라는 소규모·다기능 고령자 공동주택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 기관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포함시키거나, 그룹리빙 내에서의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고령자 관련 시설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사 서비스와 같은 거주자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등 보다 유연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 그룹리빙이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여 생활할 수 있는 거주방식을 가지고,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그 가능성을 생각한다.

참고문헌

1. Newman,O., Defensible Space,Macmillan, 1972
2. 高齡者住宅財団, 長壽社會對応住宅設計マニュアル, 建設省住宅局住宅整備課監修, 1998.6
3. 橘 弘志, 一人暮らし高齡者の生活における住戸内外のかかわりに關する研究, 1999.1
4. 大江 守之, 高齡者グループリビングの展開と可能性, Quality Nursing, 2004
5. 大江 守之 외, 高齡者グループリビングに關する基礎的研究,日本建築學會術講演梗概集, 2002
6. 上野 淳, 高齡社會に生きる-住み續けられる施設と街のデザイン, 鹿島出版會, 2005
7. 上野 勝代, 日本型コレクティブハウジングの失敗から學ぶ高齡者のグループリビングに關する研究, 京都府立大學, 1998
8. 西條 節子, 高齡者グループリビング COCO湘南台, 生活思想社, 2003
9. 野口 孝博, 高齡者の共同居住様式とグループリビングのあり方に關する計畵的研究, 第一住宅建設協會, 2003.7
10. 外山 義 외, 高齡者の生活環境と住環境の評価に關する考察, 日本建築學會計畵系論文集, 2000.7
11. 日本建築學會 編, 高齡者のための建築環境, 彰國社, 1998
12. 日本建築學會 編, 人間-環境系のデザイン, 彰國社, 1997
13. 日本建築學會 編, 人間環境學-よりよい環境デザインへ, 朝倉書店, 1998
14. 早川 裕子, 老後は仲間と暮らしたい-グループリビングのすすめ, 主婦の友社, 2000.7
15. (財)高齡者住宅財團, 安心ハウス構想のマニュアル, 2003
16. 齊藤 美穗 외, 高齡者の小規模共同住宅に關する基礎的研究,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2002
17. 佐々木 伸子 외, 公營住宅のおける高齡期のグループリビングに支援方策, 日本建築學會技術報告集17號, 2003
18. 下仲 順子 編, 高齡者心理學, 建阜社, 2004
19. 厚生勞動省老健局, 介護制度改革關聯法案の概要, http://www.mhlw.go.jp/topics/kaigo/houritu/index.html, 2006

www.kci.go.kr